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다큐에서 만나는 ‘단순한 진심’

해 그 비밀을 탈취해 오는 여정에 나선다. 경쟁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려고 8주 유급휴가를 누리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같은 비용으로 햄버거 식판의 미국 학교 아이들과 달리 코스 요리로 미식을 즐기는 프랑스 학교 아이들, 돈 안 내는 슬로베니아의 대학들, 하여 학비가 비싼 등록금 용자 대신 유학을 택한 미국 청년들을 마주치기도 한다.

시민 투쟁으로 독재자를 물리친 튀니지는 이슬람 전통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 개정으로 여성인권 혁신을 이루어, 보건소에서 피임약과 낙태 시술을 지원한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 즉 여성의 자궁은 여성의 것이기에 이루어진 변화다.

이렇듯 여러 나라를 돌며 인터뷰를 통해 엄청 부러운 제도와 그 효과를 파악한 무어는 그 자리에 성조기를 꽂고 인종상을 남긴다. 그 와중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미국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자백을 듣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다수 약자를 위한 좋은 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것일까? 권력 집단의 이런 비열함과 위선으로부터 무어 스타일의 다큐가 가능하다.

북유럽의 공평한 삶을 그린 ‘정복자 펠레’(Pelle The Conqueror, 1987, 빌 어거스트)가 떠오른다. 늙은 아버지와 굶어 죽을 정도로 고생한 소년 펠레의 꿈은 미국으로 건너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마지막 웃음’(The Last Laugh, 1924, F. W. 무르나우)에서도 미국 부자의 유산으로 빈곤을 극복하는 독일 호텔 안내원을 보여 준다. 이렇듯 일할 기회와 평등과 자유, 풍요로움을 향한 아메리칸 드림이 통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내놓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대선 후보가 나올 정도로 이상해졌다. 이런 부조리의 틈새를 파고들어 간 무어는 관객에게 풍자의 묘미를 전해 주는 고발 다큐로 일가를 이룬 셈이다. 10회를 맞이한 여성인권영화제의 개막작 ‘테레즈의 삶들’(The Lives of Therese, 2016, 세바스티안 리프시츠)은 68혁명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 온 테레즈 클레르크를 만나게 해 준다. 죽음을 맞지 않는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살-죽음’을 횡단하는 기록을 남기고픈 그녀의 요청으로 기획된 다큐이다.

죽음을 앞둔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네 자녀는 대화 중 이렇게 자백한다. “네 엄마는 내 엄마와 다르다”라고. 웃다가

울기도 하면서... 모범적인 주부에서 공동체적 삶의 전사로 변화한 그녀는 임신 중단권부터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운동까지 열정적인 페미니스트로서 인생길을 걸어간다. 즉 하나의 인생길에서 다른 인생길로 바뀌 된 것이다. 죽음에 직면한 그녀는 자신의 인생들과 투쟁, 사랑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돌아보며, ‘투쟁은 과격하게 삶은 단순하게’의 묘미를 전해 준다. 이 땅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누리는 독립 다큐들이 왕성하게 제작되고 있다. 최근 개봉한 ‘자백’(Spy Nation, 2016, 최승호)은 분단 현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간첩 조작의 진실을 추적해 나간다. 2012년 탈북한 화교 출신 유우성 씨는 동생의 ‘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몰린다. 결국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로 결판이 난 이 사건의 음모가 한국·중국·일본·태국을 넘나든 40개월간에 걸친 추적을 통해 밝혀진다.

황당하고 어이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다큐의 마지막 자막에 줄줄이 이어지는 1만7000여 명의 이름, 그것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피어난 다큐의 힘을 ‘단순한 진심’(제10회 여성인권영화제의 주제였다)으로 전해 준다.

교단에서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TV를 끄다

에서 시작된 독서 운동이 세계에 확산된 사례가 있고, 지금도 계속 되어 성과를 거둔 지자체가 많다.

‘북 스타트 운동’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유아 책 읽기 운동이고, 1988년 일본 한 여고에서 시작된 ‘아침 독서 운동’은 일본의 수많은 학교로 퍼졌는데 아침 10분 독서가 생활화되어 많은 학생들의 삶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침 독서의 4가지 지침은 ‘모두가, 매일, 좋아하는 책을, 단지 읽기만 한다.’이다. 부담을 주지 않고 습관을 들이기 위함이다.

2001년 미국 시카고에 갔을 때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시카고 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 인사들이 각 학교에 명예독서회원으로 가입하여 학교 독서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 결정한 책이 ‘앵무새 죽이기’인데 이 책에도 세계적 독서운동으로 확산 중이다.

시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의 실무를 맡았던 나는 300여명의 광주 학부모독서회장들에게 두 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언론인 홍세화 교수, ‘여성 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등 과학, 환경, 인문학 관련 40여권의 저자인 최 교수는 ‘부계 중심의 호주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른 것’이라 단언하여 남성 호주제에 마침표를 찍게 한 분이다. 저녁에는 자녀를 돌보아 한다면서 저녁 회식 대신 점심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서울대 회식문화를 바꾸기도 했다. 언론인, 사회운동가인 홍 교수는 ‘남민전’ 활동으로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땅 파리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겪은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가 대표적인 저서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싫어하지만 당신을 싫어하진 않겠다.’는 프랑스의 ‘몰레랑스(관용)’ 문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정(情) 문화도 혈연, 학연, 지연에만 묶이지 않는다면 아주 소중한 문화라고 말한 분이다.

어렵게 마련한 세미나에 욕심이 생겨 두 분을 다 모시고 싶었으나 워낙 바쁜 분들이어서 강사로 모시기도 힘들었지만 같은 날 일정을 잡기는 더욱 어려웠다. 겨우 허락을 받았는데 최재천 교수가 문제였다. 저녁 7시까지 서울 자택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저녁 7시부터 아들보육과 가사는 그의 담당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강청에 차를 대기하는 등 세심한 준비로 무사히 세미나를 마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데 강의는 예상을 훨씬 빚나갔다. 어떻게 하면 학부모 독서회원들이 더 많은 책을 읽고, 자녀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등등의 비법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90분 강의 중 80분을 동물 생태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재미는 있었다. 근데 독서는?

겨우 10여분 남겨두고 독서에 대해 말했다. 저녁 7시부터 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재우는 일을 도맡는데 3살 되기 전부터 밤마다 책을 읽어 주었다고 했다. 어

는 날은 하도 피곤해서 책을 읽어주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책을 거꾸로 들고 읽고 있더라는 것이다.(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잘 때는 이부자리를 챙겨주고 꼭 포옹 한번 하고 자게 하는데 문제는 초등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책에 더욱 재미를 붙여 몇 권씩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읽겠다고 고집하여 두 권만 또는 세 권만 등 밤마다 타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독서회원 여러분! 책 읽는데 좋은 방법이 없어요. TV 끄고, 엄마 아빠 먼저 책 읽고 있으면 아들딸도 읽어요.’가 끝이었다. 흠뻑 한방이였다.

이러저러 사례를 들었지만 개인이나 기관이나 실천이 관건이다. 26개월 된 손주 윤서가 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는 꽃밭에다 재우고요, 다른 아기는 개똥밭에 재운다네, 자장자장’. 내용은 좀 그렇지만 내가 어릴 때 듣고 잠든 자장가여서 윤서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었는데 어느 날 밤 몇 번 뒤척이더니 ‘꼬바테다’를 불러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자장자장 말이나’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다. 그저 듣다가 잠이 든 줄만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었다.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진 것은 거짓말 때문이고,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다는 것까지 알게 된 손주 윤서 때문에 우리 집 TV는 이제 꺼야할 때가 되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고



이병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금남로 4·19공원을 아십니까?

주민중항쟁 역사보다 20년 앞선 광주3·15와 4·19민주화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3·15와 4·19민주화역사는 각각의 역사가 되는 바람에 대부분 시민들은 광주의 역사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광주민주중항쟁은 수천명 사상자를 내는 비극적 과정을 겪었지만 7년 후 한국의 민주화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 광주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인권실현의 투쟁과정에서 항상 선두에 서게 된 것이다. 광주민주중항쟁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도 광주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주항쟁 기록물 등은 2011년 5월2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광주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자유당의 국민주권 박탈에 저항한 전국 최초의 시민봉기다. 이날 날 12시45분께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당원과 시민 1000여명이 결기한 ‘국(國) 민주주의 장승 태모’는 전국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첫 시위로, 3시40분경과 7시경 마산에서 1, 2차 시위가 있었다. 이때 사망한 김주열 학생 시신이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전국에서 분노가 극에 달해 4월19일 전국 대도시에서 4·19혁명의 불꽃이 터졌다.

광주와 마산지역 3·15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시원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1960년 3월15~16일 동아,조선,한국일보 조·석간 기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기록은 마산의 3·15의거 만을 4·19혁명의 시원으로 기록관리 하고 있으며, 정부는 마산 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따라서 기타 모든 역사기록물은 마산의 3·15의거만을 알고 있다. 역사의 진실이 존재하는데도 3·15역사가 왜곡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광주의 위대하고 자랑스런 역사를 광주시민과 지자체가 적극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부 역사관이 담담 부서에서 사료 조사와 연구가 보다 깊고 넓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란 기록 관리되지 않으면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와 같다’는 격언이 있다. 광주시민과 광주시는 이제라도 역사의 진실을 밝혀 위대한 3·15역사를 바로 세워 광주위상과 광주시민의 자부심을 되찾아야 한다. 4·19 역사는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 초석을 이룩한 역사이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3·1 독립운동과 4·19민주혁명을 대한민국 근근으로 하고 있다. 광주는 헌법전문

에 명기된 4·19민주혁명의 진원지라는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4·19역사가 광주에 있는지 모른다. 1960년 불의에 항거한 광주 4·19민주혁명의 최대 격전지는 금남로다. 당시 진압 경찰과 학생,시민이 연합한 시위대는 물대포와 투석전으로 맞섰다. 시위가 점점 가열되자 경찰이 총격전으로 맞서는 바람에 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7명이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숨졌다. 2011년 1월21일에는 이기택 전 서울 4·19공로자회 회장과 전국 4·19주역들이 ‘4·19혁명의 진원지’라는 표지석을 만들어 현 금남로 공원에 ‘4·19혁명의 진원지’ 표지석 건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광주시의회 부의장 및 시의원, 광주4·19주역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본행사 축사에서 시의회 대표는 금남로 공원을 ‘금남로 4·19공원’으로 명명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껏 실행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실행해 자랑스런 광주역사와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여야 한다. 금남로 공원을 ‘금남로 4·19공원’으로 명명함으로써 금남로와 4·19 역사를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社說

대통령의 ‘개헌 카드’ 국면 전환용 아닌가

어제 아침 방송 뉴스를 보던 이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갑자기 개헌 이야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실무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정국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 발언은 이날 없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이 자신의 공약 사항이라 했지만 지금까지 재임 중에는 철저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개헌 블랙홀’론이 바로 그것이다. 개헌 문제에 정국이 흔들 경우 민생과 경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네 배경은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과 연관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새누리당 친박계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이원집정부제 시나리오를 거론해 왔는데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기 말이 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진 것도 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

황에서 마지막 국정 동력을 회복할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순실’ ‘우병우’로 화자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등 각종 ‘개이트’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스스로 누차 강조해 온 개헌이라는 ‘정국의 블랙홀’로 각종 의혹을 빨아들임으로써 위기를 넘기려는 승부수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개헌에 대한 여론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 야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통감하는 의원들이 많고 국민의 70%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개헌 카드는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정권 말 게이트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정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순실 파문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역 성장 이끌 대형 프로젝트 준비할 때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형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이 ‘호남 구애’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기획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 정치권의 분위기를 들여다 보면 이 같은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다. 당장 아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지열한 경쟁전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 지도부가 ‘호남비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당이 책임지는 호남 현안 사업 리스트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오는 28일 2기 지도부 선

출 이후 예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펼칠 호남 현안사업에 대해 발의 예정이며 새누리당은 호남 현안 사업 행거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 성장을 이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하지만 광주 사업과 전남도가 추진하는 내년 국고 사업을 보면 대형 국책사업이 전무하다.

우리에게는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 호남주도의 정권 창출을 맞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밀어줄 대형 프로젝트 부재로 지역 발전의 호기를 놓친 뼈아픈 기억이 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당장 호남의 성장동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無等鼓

흔히 ‘가을이 익어 간다’고 표현한다. 오곡백과(五穀百果), 온갖 곡식과 과일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 때문이리라. 가을과 관련된 속담들도 재미있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담뱃연이다’고 한다. 가을견이를 할 때 짝은 힘이라도 모두 써야 할 정도로 매우 바쁘고 손이 모자람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출간된 ‘우리말 절대지식’(김승용 엮음·동아시아 펴냄)에 따르면 본래 이 속담은 ‘가을에는 이 아니라 ‘가을 메는’이었다

가을견이

1808원으로 지난해(15만6880원)보다 16%가량 하락했다. 더욱이 이달 초 강타한 태풍 ‘차바’ 영향으로 벼 수확이(籾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전남도 조사 결과 도내 전체 벼 재배 면적(16만5270ha) 가운데 10.1%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1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2만여 명의 농민 등이 서울에 모여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

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지구에 곡식 파우를 뿌려나 할 때만 보성 출신이 백남기 씨도 당시 집회에 참가한 많은 농민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던 1년 여 동안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대신 오로지 ‘사고 원인’에만 신경을 썼다.

올해 역시 계속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심정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언제든 ‘제2의 백남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농민이 아스팔트 사위에 나서지 않고도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흐트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 걸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